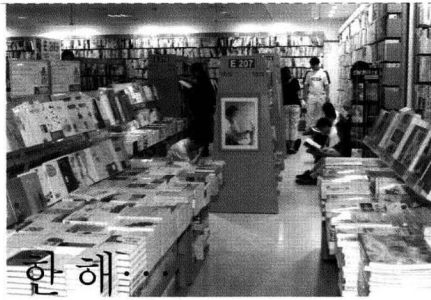


# 도서관문화 지키고 알리며 바꿨던 보람도 크고 아쉬움도 크고



한 해

글 | 이용훈 (한국도서관협회 기획부장)

벌써 한 해를 정리해야 하다니! 2004년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뭔가 기억할 만한 것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한국도서관협회 직원으로서 올 한 해는 협회 기관지인 <도서관문화 圖書館文化>를 그동안의 격월간에서 월간으로 발행하게 되어 그것을 해 내느라 힘들었다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일년에 6번 내던 잡지를 12번 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올 한 해 직원들과 함께 마감일에 쫓기며 살았다. 그러나 더 빠르게 도서관계 소식을 정리해서 전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이야기를 담아 낼 수 있었다는 것에 만족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매월 '30년 전 우리는'이라는 고정 지면을 통해 30년 전인 1974년의 도서관계를 되짚어 보면서 오늘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도 때로 즐겁고, 때로 가슴 아픈 일이었다.

올 한 해는 독서활동에도 자주 참여하였다. 특히 작년 서산시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에 대해 자주 자문에 응해야 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서울문화재단과 서울시 공공도서관들과 함께 9월과 10월에 걸쳐 서울시에서 '책 읽는 서울'이라는 새로운 독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일에 참여하여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마사회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3개의 농어촌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실을 새롭게 꾸미도록 도왔다. 새롭게 꾸미진 공간에서 아이들이 밝게 웃으며 책을 보는 광경을 보니 보람이 컸다.

자라나는 어린이가 누구나 차별 없이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 그 중에서도 책을 맘껏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확신한다.

물론 힘들고 괴로운 일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개정된 저작권법이 도서관에서 디지털 형태로

도서를 이용하게 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문화하기 위해 정부나 저작권 단체에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최근 대학교 도서관들이 이 문제에 대해 다른 견해를 표명함으로써 제도 정착에 차질이 생긴 것이 못내 마음에 걸린다. 이 문제에 대해 상호 입장을 조정하고자 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좀더 적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노력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갖는다.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내 도서관정책 부서를 폐지한다는 방침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일 또한 아쉽다. 결국 11월 들어 도서관박물관과는 폐지되었다. 정부로서도 타당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도서관계가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좀더 깊이 고민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 더 나은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지 못한 것은 반성할 일이다. 한편으로 도서관들도 자율성과 자치능력을 강화해서 스스로 자기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갈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아픈 기억을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원동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계기도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여름 한 나절 어린이 전문 도서관인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책임은사회만들기국민운동의 사무처장 대행역을 맡아 청주와 울산의 어린이도서관 개관작업을 무난하게 마친 것도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오랜 현장 생활에서 한 단계 성숙한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고 올해부터 새로 공부를 시작했다. 올 여름은 무척 더웠고, 가을 대학 교정은 아름다웠다. 좋은 책도 많이 출간되었는데, 밀린 책 읽기로 한 해를 마무리해야겠다. ■